



가까운 인연들에게 죄를 지으면 불행해 집니다. 가까운 인연부터 좋은 인연을 맺어야 행복해 집니다.

- 용인 반야선원 조실 자광 스님



용감한 등록금 인상에 간절한 삼보일배 동국대 학생들이 2월 10일 교정에서 등록금 4.9% 인상에 항의하는 뜻에서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정과 조계사 앞에서 학교 측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여 왔다. 동국대의 4.9% 등록금 인상은 전국 대학 중 가장 높은 인상율이다.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최대 22만원이 인상된 금액이 고지됐다. 학교 측은 "지난 2년간 등록금 동결로 적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적립금을 모두 썼다. 교원 확보 등으로 올해에는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전통문화 훼손·은폐 더 이상 좌시 않겠다”

조계종, 낙단보 마애불 파문 법적 대응 시사

조계종이 낙단보 마애불 사태와 관련해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른 의도적 훼손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당국의 적절한 해명이 없으면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2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낙단보 마애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낙단보 마애불은 2010년 10월 4대강 사업 공사구간에서 훼손된 채 발견된 채 불교계를 경악케 했다. 최근에는 정부가 불교계를 통보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은폐 시도를 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호탄 스님은 “정부가 보물급 문화재의 의도적 훼손 의혹을 방지하고 문화재 보호 의무를 받기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 사실을 인지하고 10월에 발견한 것처럼 발표해 국민과 종교 지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문화재청과 4대강 사업 경남지역 본부가 10월 6일 통합관리센터 부지 조성 공사에서 마애불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지만 종단이 현장에 확인한 결과 의성군은 이미 8월에 마애불의 존재를 확인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조계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이 경과한 뒤 훼손된 채 발견된 것이 의문이라며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한 의도적 훼손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마애불에 대해 관련학계가

보물급 문화재로 평가했음에도 문화재청이 지방문화재로 심의·결정한 것도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보물급 문화재로 지정되면 발굴 구간 일대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기자회견 후 문화재청과 관계 당국에 종단의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2월 16일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단은 또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2월 18일 낙단보 공사현장을 방문해 마애불 훼손과 은폐의혹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은 1080매를 울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문화재청은 필요하면 조계종과 협의와 해명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사공 없어 멈춰선 불교환경연대

수경 스님 빈자리 극복 못하고 사업 공전... 존폐 위기설까지 나와

2월 10일 조계사 신도회관 4층 불교환경연대 사무실을 찾았을 때 4개월 여 홀로 사무실을 지키던 명계환 조직국장은 사직하고 없었다. 대신 2월14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前 대한불교청년회 김두환 총평위원장이 업무과와 중이었다. 옆 자리에는 부설기관 숲명상 유아학교 연구소 김주연 실장이 있었다. 2010년 6월 14일 불교환경연대 수경 스님 은적 이후, 7월 회원사업팀 김중형 간사·8월 유은주 홍보팀장·심보람 총무간사·9월 장재원 교육국장이 연이어 사직했다. 4개월간 표류하던 환경연대는 10월 11일 임시총회에서 현고 스님을 상임대표로 어렵게 선출했다. 현고 스님은 “2010년 12월까지 책임자가 선출 될 때까지 조건부로 맡겠다”며 조건부 승락했다. 현고 스님이 상임대표로 있는 2개월 간 불교환경연대의 행보는 부자연스러웠다. 현안마다 입장표명을 아꼈다. 총무원과 정부 눈치 보기에 바빴다는 비난이 그치지 않았다. 당시 명계환 조직국장은 “활동하는 (농성)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라며 자신과 연대의 정체성에 늘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비판을 대신해

불교환경연대는 생소한 사업들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부설기관으로 출범시킨 한국형 숲명상 유아학교 연구소 ‘아이숲’이 그 예이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무슨 일을 하는 거냐’는 수근거림도 있었다. 신규 사업을 통해 조직을 되살려 보겠다는 역발상의 강한 의지였으나 대중은 외면했다. 1월 13일 명계환 조직국장은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어 17일 현고 스님도 사의를 표명했다. 현고 스님은 전화통화에서 “수경 스님의 정신과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TP팀을 구성해 조직을 안정화하고 환경연대의 방향을 논의하는 일도 재정과 인력이 부족해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슈퍼스타’(수경 스님)의 빈자리를 잠시 떠맡으며 늘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명계환 조직국장은 “환경연대의 정체성이 사라졌다”며 “논의 구조와 절차, 집행위 회의 및 공유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불교환경연대의 공동대표와 상임대표는 집행위원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집행위에서는 2월 예정된 총회

는 물론 대표 선출에 관해서도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몇몇 집행위원은 현고 스님 사의표명 소식도 모를 정도로 무관심한 것이 불교환경연대의 현실이다. 당연직 집행위원인 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지부대표 법일 스님은 “지부는 지부의 역할에 충실할 뿐”이라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 없이 상임대표가 재정까지 맡아야 하는 조직에 쉽게 사람이 나 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지회 대표 주경 스님은 “집행위 회의는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도위원인 법응 스님도 환경연대의 움직임에 대해 갑갑한 심경을 토로했다. 스님은 “내부적으로 쓴 소리도 안하고, 외부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원장인 김포지회 대표 지관 스님은 “숲유치원으로 지도자를 양성하며 내부역량을 모으고 결집하는데 열의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때 새만금 살리기 삼보일배, 청성산 살리기 단식 등을 통해 불

교시민사회의 환경운동은 환경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불교시민사회의 대표격이던 불교환경연대가 창립 10년 만에 해체 위기설까지 도는 이유는 뭘까? 불교환경연대는 여전히 수경 스님과 같은 막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누군가가 아마타불처럼 화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경 스님은 진두지휘했다.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독단적인 시스템을 문제 삼아야 할 단체가 전근대적인 1인 체제 구조에 익숙해져 있었다. 법응 스님은 “불교환경연대의 문제는 곧 변화가 없는 조계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불교환경연대의 존폐 위기는 결국 사회 변화를 도모하면서도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해 비롯된 문제이다. 자성과 쇄신만이 불교환경연대를 살릴 수 있다. 이상연 기자 kenichino@gmail.com

사령
수습혜제
천진영 명 편집국 취재부 기자
2011년 2월 7일 부

탐욕에 빛바랜 부다가야 고려사의 꿈

2200평 중 1400평 前 주지가 사기 매각

부처님 성지인 인도 부다가야에서 한국불교를 상징해 온 고려사 땅 70%가 사기 매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는 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의 사문서 위조에 의해 2200평 고려사 부지 가운데 1400평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밝혔다. 고려사는 1991년부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을 중심으로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일궈온 사찰이다. 1994년 조계종 총무원에 등록된 이후 원공 스님(속명 김종철, 현재 분한미필로 승적탈소)이 주지를 맡아 운영해 왔다. 고려사는 인도 법률에 의해 현지법인인 ‘한국불교회(회장 현동화)’ 소속사찰로 등기됐지만 원공 스님은 이사의 싸인을 위조해 두차례에 걸쳐 땅을 처분했다. 정우 스님은 “1월 중순 성지순례

차 신도들과 고려사를 방문했다가 고려사 땅 70%가 제3자에게 매각됐고, 고려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현재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사기행각으로 더 이상의 삼보정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추가 매각 등을 막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개인의 사문서 위조로 고려사 부지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만큼 이를 되찾기 위해 호법부·인도 대사관·경찰청 등 진정서를 접수시켰다”며 “총무원이 새로운 재산관리인(도웅 스님)을 위촉한 만큼 고려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사 주지였던 원공 스님은 고려사 부지 매각 외에도 불사 명목으로 통도사로부터 3500만원을 받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우 스님은 “원공 스님은 2008년부터 불사 명목으로 통도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왔다”며 “불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입금된 통장은 고려사 명의로 위장된 개인통장으로 불사금을 착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해외사찰에서 유사한 사

레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알리게 됐다”며 “한국불교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사기 매각된 부지를 되찾는 것 뿐만 아니라 미진했던 고려사 불사를 전격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stana@gmail.com

823호 CONTENTS

- ▶5 인터뷰
동국대 17대 총장 김희욱
- ▶9 현장속으로
스리랑카 답사기
- ▶12 세연제
박재완기자의 사찰풍경 II
- ▶20 정찬주의 행복한 선 여행



해인선원 붓다가야 일주일 참선용맹정진 대법회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위치한 해인사 말사 대구 해인선원에서는 오는 3월 14일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인도 붓다가야에서 해인선원 원장 금봉스님과 함께 일주일 참선용맹정진을 봉행하오니 뜻이 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접수마감은 2월 28일이며 그 밖에 자세한 문의는 053)741-878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1년 3월 14일 (월) ■ 접수마감 : 2011년 2월 28일 (월)
- 문의전화 : 053)741-8788 / Fax : 053)743-8835
- 찾아오시는 길 (대구 동구 신천 4동 352-9)

